

## 대전의 현대건축 Contemporary Architecture of Taejeon

유병우 / 씨엔유건축 소장  
by Yu Byeong-Woo

### 들어가며

1910년대에 경부선과 호남선의 개통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도시인 대전의 건축은 처음에는 도청과 대전역을 잇는 중심축으로 한 중앙통과 대전역에서 남북으로 가로질러 신탄진편의 정동, 삼성동과 옥천방향의 원동, 인동의 가로변을 중심으로 세 갈래의 축으로 발전하여 나갔다.

대전역사(1960, 이상순)를 시점으로 하여 5·16혁명 이후인 60년대 초 중앙통에 고려생명사옥(대흥동), 시민관(선화동, 구 문화원) 등의 현대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였고, 70년대 초에 운성빌딩(은행동), 경암빌딩(대흥동, 김인호), 구 대전일보사(중동) 등의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대전의 현대건축은 서서히 태동을 하였다. 이즈음 휴양지인 유성온천 부근에 만년장을 비롯한 대형의 숙박시설들이 먼저 세워졌고, 도심에는 도청부근을 중심으로 한 관공서 건물군에 전신전화국 같은 공공업무시설과 각종 교육시설과 병원, 극장, 교회 등의 대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현대건축이 시작하였으며, 이즈음 대화동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도시 발전을 가로막던 서대전 지역의 육군병참학교와 63병원, 미군부대(Camp Ames) 등이 철수되면서 큰 대지가 형성되면서 건물의 대형화가 촉진되었다. 70년대 말 갑천 체전 때 많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적인 도심의 개발이 시작되고, 80년대 초에 대덕연구단지의 개발과 갑천변의 공군기교단이 나가면서 둔산지구에 신도시의 개발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개발도상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는 1993년도에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현대건축이 활기를 찾기 시작하여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어 오다가 이후 1998년도에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으로 정착되려던 현대건축은 IMF체제의 출발로 답보상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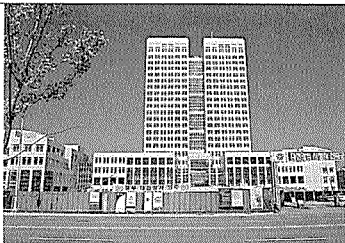
### 시대별 구분

대전의 현대건축을 시대별로 크게 구획을 지어 60년대를 태동기로 본다면 70년대는 답보상태를 이루었으며 고속성장을 하던 80년대에 물량위주의 건축이 행하여 졌으며 9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이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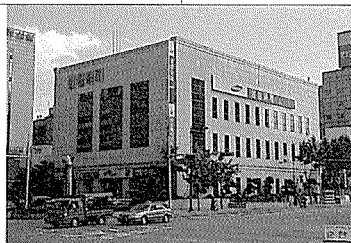
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공서 건물이 주를 이룬다. 이는 도시 형성과정의 전형적인 형태로 관공서 주변의 업무시설을 위주로 하여 상권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주변건물이 등장할 하게 된다. 대전시를 한 장으로 나타내는 사진은 보문산 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당시의 사진을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라고는 후에 개축한 한밭운동장(공간건축, 1979)과 충무체육관(김인호, 1974), 대전중고등학교 교사, 중구청(구 시립도서관)건물과 멀리 보이는 대전역사가 전부였으며, 나머지는 일반 주택으로 형성된 아담한 도시의 형태였다. 특히 대전역사는 당시 공모에 의하여 진행된 프로젝트로 건물의 형태가 기본적인 모듬에 충실한 작품으로 대전의 현대건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비교적 종교건축은 활발한 태동을 시작하여 초기에는 구세군영문(문창동)을 필두로 대흥동성당(1963)이 세워졌으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박만식(충남대)교수가 계획한 박공지붕의 문창동성당을 비롯하여 정동성당(1982년 철거), 대동성당 등이 세워졌으며 그 외에 농수산물 검사소 충남지소(대흥동), 대전여중 서관(대흥동), 대전고등학교 도서관(조정환), 대한결핵협회 대전지부(정진경, 문창동)와 시내에 처음으로 승강기를 설치한 운성빌딩(은행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시내 중심부를 도도히 흐



대전시청사



구 시청(현 삼성화재)



한일은행(구 한국은행)

르는 대전천을 덮어버린 홍명상가와 중앙데파트가 목적교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등장해 도심의 중심을 좁혀 주었으며 주거단지로서 유천동과 도마동을 비롯한 서부권의 개발이 촉진되어 유천을 넘어 점차 서쪽 방면으로 뻗어 나갔다. 이즈음 세워진 가톨릭문화회관(지 순, 대흥동), 충남학생과학관(이재성, 대흥동), 시민회관(문화동), 대전고속버스터미널(조정환, 용전동), 경암빌딩(김인호, 대흥동), 유천동성당(1979)과 대전성모병원(박만식·이재성, 대흥동), 알루미늄 멀리언을 처음으로 시도한 충청은행 본점(은행동) 등이 세워졌으며, 후반기에 갑년 체전을 즈음하여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들이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80년대에는 정체의 시기를 거처서 후반기에는 서울 올림픽개최와 때를 같이하여 비교적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예로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교보 대전빌딩(Cesar Pellis 기본안, 1985)을 비롯하여, 원형계단을 중심으로 펼쳐진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전대학교 학생회관(이재성·유창열, 1986), 공모에 의하여 진행된 변동성당(송효상, 1988)과 용두동의 총렬탑 언덕에서 있는 성산교회(유병우·박성철, 1989)등을 들 수 있으며, 유성에는 만년장 자리에 새로이 계획된 호텔 리베라(송기덕, 1988)와 유성관광호텔, 현대리조트(홍도건축) 등이 들어섰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공간건축(김수근)에서 계획한 두리에식당(장세양, 1990)과 국립중앙박물관(김형만, 1990)을 시작으로 유성의 레스토랑 만나(조성렬, 1992)와 동아리호텔(나한진, 1995), 흥인오피스텔(강영호, 1992), 아드리야호텔(범건축, 1992) 등의 대형 리조트 형식의 건물군이 형성되었고, 시내에는 동아생명 대전사옥(고려건축, 1996), 그리고 삼성생명(김태선, 대흥동)과 중앙투자신탁(정림건축, 1994), LG증권(조재원, 1997) 등의 금융기관과 대림빌딩(김호, 1993), 수정웨딩홀(나한진 외, 1995), 우송예술회관(박윤웅, 1992), 파출소 건물을 패션화한 은행동파출소(씨엔유건축, 1995)를 비롯한 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특히 93년도에 대전엑스포가 개최되면서 한빛탑(한재원+인터디자인, 1993)을 중심으로 정부관(신언학,

1993), 재생조형관(최재은, 1993), 우주탐험관(삼우건축, 1993), 소재관(조춘성, 1993), 전기에너지관(유종성·최용목, 1993), 지구관(이공건축, 1993), 평화우정관(예건축, 1993) 등 많은 전시공간이 다양한 입면과 구조로 영구 전시장이 새로운 공법의 건축물들이 한 번에 등장하여 대전지역의 현대건축에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대덕연구단지의 중심지역에 공모에 의하여 세워진 대덕과학문화센터(방철린, 1993), 삼양사연구소(권도웅+Perkins & Will International)와 소박하고 기능적인 건축을 추구하여 97년도에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LG화학 대전연구소(김태수+창조건축, 1997), 우주항공연구소, 도로면에 강한 파사드로 스크린을 형성한 한국이동통신 대덕연구원(한현호, 1997), 원과 사각형의 조화로운 만남을 시도한 데이콤연구소(정림건축, 1993)등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서면서 대전의 현대건축에 질적인 향상을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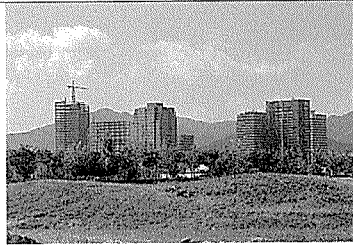
둔산지구가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면서 많은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동시에 분양되면서 이의 수요에 따른 차고형 대형 마트인 까르푸(이영희, 1996)와 마크로(이원석, 1997)와 동양 타임월드(연미건축, 1997)가 등장하고,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지던 서대전역 부근에 세이백화점(간삼, 1996)과 프라이스클럽이 등장하여 대형 마켓이 의미없는 건축물의 대형화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비록 개발을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둔산지구는 3,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연금 대전회관(인터플랜, 1996), 신세계통신 대전사옥(POS-AC, 심인보, 1996), 대전상공회관(김창일, 1995), 한국통신 둔산사옥(공간 정중영, 1995), 쌍용증권(김수근, 1997), 대우증권(엄웅, 1995), 신융합동조합 대전연합회관(청전건축, 1997) 등의 중대형의 사옥이 앞을 다투며 세워짐으로써 새로운 도심으로의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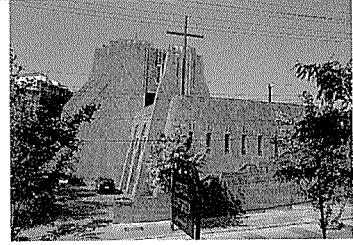
또한 최근에 준공되어 이전을 마친 중앙의 개방된 중심공간의 중심으로 네 개의 동으로 분산시킨 최첨단기능 건물인 정부대전청사(삼우건축+전동훈, 1997)를 비롯하여 부근에 동일축 상으로 신축 공사중인 대전시청사(박윤웅+이인호), 그리고 전면의 사학연금 대전둔산회관(정림건축, 1988)과



목적교



유성 원경



변동 성당

준공을 서두르고 있는 충청 하나은행(정림건축), 법원 검찰청사 등이 앞으로 새로운 대전의 신도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주거시설은 70년대 말경부터 연구단지 내에 대형의 단독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대단위 공동주택은 60년대 말경 비래동에 처음으로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단지가 등장하였으며, 대사동의 12층짜리 보문맨션(김종민)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고층화하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는 삼부맨션(태평동), 경남아파트(도마동)와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기장동, 산내, 판암동, 문화동, 중촌동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둔산지구와 엑스포아파트(아키텔랜)까지 대규모 주거단지가 이루어져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의 형태로 주거양식이 대부분이 변화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노은주거단지와 앞으로 서남권에 대규모의 단지가 계속해서 조성될 예정이다.

### 나가며

지금까지 시대별로 형성되어온 대전의 현대건축을 살펴보면 별다른 특징 없이 일반적인 도시발전의 형태에 의하여 세워졌다. 구태여 특징을 든다면 서울의 건축이 '세계화'를 추진할 때에 '서울화'를 답습할 정도이었다.

한때는 모방건축이 성행하기도 하였으며 필요 없는 유행으로 가벽이 설치되는 등의 과잉반응을 보이다가 둔산지구가 개발되면서 관련법규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에 적합하게 이상한 형태의 건축문화가 생성되어 역기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건축재료의 사용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표현되어 일률적인 입면으로 표출되고 있어 입면이 건물 자체의 평면이나 기능에 의하여 구성되기보다는 재료에 의한 형태구성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물은 화강석판과 메탈과 유리로 획일화되는 느낌이고 특히 학교건축은 적벽돌로 마감을 통일한 듯하여 다양한 입면의 구성이 불가능한 편주의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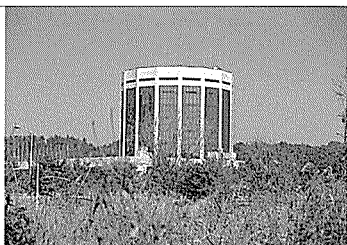
다행스러운 것은 둔산지구와 대덕연구단지에 세워졌거나 새로이 계획되는 건축물들이 이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에 따라 대전의 현대건축은 보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쉽게 의도되었던 상업적인 이윤추구보다도 사회적 기여에 점차로 비중을 둔 건축물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전건축의 지역성을 탈피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총체적인 건축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활공간을 경시하는 풍조는 주변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시민', '지자체', '건축사'가 삼위일체 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은 건축이 예술문화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연계성이 있는 건축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전문가의 아이디어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작은 아름다움은 시민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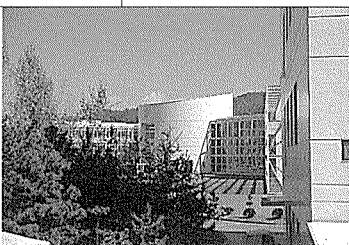
생활공간을 경시하는 풍조는 주변에서부터 개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시민', '지자체', '건축사'가 삼위일체 되어야 한다. 우선 '시민'은 건축이 예술문화라는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연계성이 있는 건축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은 전문가의 아이디어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작은 아름다움은 시민 스스로가 느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과감히 규제를 철폐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각 지역마다 문화와 풍습, 관습 등의 배경이 다른데 일률적인 통제는 자기 주장만을 지속적으로 답습하게 된다. 행위의 대상자인 '건축사'는 주체가 되어서 도시 이벤트를 제공할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여,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만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비평이 존재하여야 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음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보존 의지는 감소하고 오직 사용의 불편만이 부각되어 철거되지만 발생하여 건축문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기존 건축물들을 보다 알고 이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활동으로 보고 지나는 건축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건축이 될 수 있다.



KAIST



삼성사연구소



동양백화점